



처용과 오이디푸스의 서사 비교 연구

주체의 저항과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f Narrative of Cheoyong and Oedipus - Based on Subjects Resistance and Changing Patterns -

저자 (Authors)	윤정업 Youn, Jung-eop
출처 (Source)	비평문학 (69) , 2018.9, 265-287(23 pages) Literary Criticism (69) , 2018.9, 265-287(23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비평문학회 The Society Of Korean Literary Criticism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40626
APA Style	윤정업 (2018). 처용과 오이디푸스의 서사 비교 연구. 비평문학(69), 265-287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4/09 15:3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처용과 오이디푸스의 서사 비교 연구

- 주체의 저항과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윤정업(강원대 국어국문학과)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소포클레스의 비극 『오이디푸스 왕』의 오이디푸스와 『三國遺事』 卷二 「紀異」 ‘處容郎望海寺’條의 처용이 그들이 속한 세계와 어떤 양상으로 갈등하고,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비교함으로써 오이디푸스 담론과는 다른 처용 담론의 일면을 발견하는데 있다. 그리고 이렇게 발견된 처용 담론의 다름은 오이디푸스 담론만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현대 한국 문학과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주체가 세계에 편입되는 과정, 주체에게 나타난 갈등과 갈등 해결의 양상,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나는 주체의 변화와 주체에게 부여되는 의미를 비교함으로써 오이디푸스와는 다른 처용 담론의 양상을 발견하고자 한다.

주체가 세계에 편입되는 과정을 볼 때 오이디푸스는 과감하게 행동하여 스스로 스팅크스를 물리치고 테베의 왕이 된 주체이고 처용은 타의에 의해 수동적으로 신라의 신하가 된 주체이다. 이러한 적극성과 수동성의 차이는 갈등과 마주하였을 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오이디푸스는 과감한 태도로 역병을 해결하려고, 처용은 춤을 추고 물러남으로써 판단을 유보한다. 그러나 두 주체에게 나타나는 결과

는 다르다. 적극적이었으나 동시에 이성에 대한 맹목으로 타인의 말을 거부한 오이디푸스는 테베의 문제는 해결하나 동시에 스스로 비극적 영웅이 된다. 수동적이었으나 판단을 유보한 처용은 역신을 발견하고 벽사의 능력을 얻게 된다.

이러한 두 영웅의 태도에서 한계를 경계하고 장점을 취한다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두 태도를 비교하여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장점을 드러내어 두 태도를 결합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주제어: 처용, 오이디푸스, 갈등 양상, 주체와 실재의 변화, 적극적 의지와 유연한 태도

I. 서론

본 연구는 소포클레스의 비극 『오이디푸스 왕』의 오이디푸스와 『三國遺事』 卷二 「紀異」 ‘處容郎望海寺’條의 처용이 그들이 속한 세계와 어떤 양상으로 갈등하고,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비교함으로써 오이디푸스 담론과는 다른 처용 담론의 일면을 발견하는데 있다. 그리고 이렇게 발견된 처용 담론의 다름은 오이디푸스 담론만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현대 한국 문학과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오이디푸스 담론은 서구화된 현대 한국 사회와 그 사회의 한계를 그려내는 문학을 분석하는 큰 틀로서 비평의 선봉에서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한국이 서구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적인 무엇인가는 남아 있으며, 오이디푸스 담론이 서구 중산층 사회의 문화 비평에 큰 축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 한국 문학과 사회를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은 물질적, 정신적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는다. 농업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유통경제는 전세계적 무역망을 바탕으로 한 성

장주의형 자본주의 경제로 변모하고, 충효를 중심으로 하는 유교적 사유체계는 개인의 자유와 기회의 균등을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적 사유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는 일제 강점기에 이식된 서구식 교육 시스템과 서구 중심의 사유방식이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으로 요약되는 서구 문명은 기독교와 인본주의 사상을 통해 현대 한국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구성된 현대 한국은 일부 남아있는 조선시대 문화의 흔적 위에 서구 문명을 덧씌운 상당히 독특한 형태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 한국 문화를 설명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헬레니즘 이해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오이디푸스 담론을 들 수 있다. 프로이트에 의해 재발견되어 부친살해라는 기존 권력에 대한 거부와 근친상간이라는 금기에 대한 욕망으로 해석된 오이디푸스 담론은 서구뿐만 아니라 한국을 분석하는데도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오이디푸스 담론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20세기는 그야말로 오이디푸스의 시대이며, 부친살해라는 은유가 직접적이고 폭력적으로 구현된 세기였다. 조선시대를 이끌어 온 왕을 전면에 내세운 재상 정치 시스템은 일제에 의해 강압적으로 거부되었고, 일제가 쫓겨난 빈자리를 차지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서로를 거부한 나머지 전쟁이라는 극단적이고 참혹한 방식으로 한국을 새롭게 출발점으로 되돌린다. 그 후 재건의 과정에서 태어난 군사독재는 꾸준하고 치열한 민주화 운동에 의해 막을 내린다. 그리고 이러한 지속적인 거부의 과정에서 금기에 대한 욕망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과 경제적 이익의 추구라는 형태로 뿌리를 내린다.

오이디푸스 담론은 도정일¹⁾, 김광일²⁾, 류인균³⁾, 한명화⁴⁾ 등의 연구자들을 통

1) 도정일, 「도정일의 신화 읽기(9): 20세기의 오이디푸스」, 『문학동네』 6권 2호, 문학동네, 1999 여름.

2) 김광일, 『韓國傳統文化의 精神分析 : 神話, 巫俗, 그리고 宗教體驗』, 한국학술정보, 2003.

3) 류인균, 『한국 고소설에 나타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 <심청전>. <콩쥐팍쥐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류인균,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이해 : 이광수, 김동인, 염상섭, 이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해 직접적인 문학연구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문학 연구뿐만 아니라 대중문화 연구에도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오이디푸스 담론이 세대와 국가를 초월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문화의 설명이 지나치게 오이디푸스 담론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오이디푸스 담론은 거시적, 정치적으로 보면 기존 권위에 대한 저항과 새로운 욕망의 달성이라는 발전적 담론이지만, 미시적, 개인적으로 보면 자신의 지식을 통해 왕이라는 위치에 오른 주체가 지식의 과신에 의해 파멸을 맞고 그 고통을 감내하는 영웅적 담론이기 때문이다.⁵⁾ 전근대적 정치시스템, 공산주의(혹은 자유민주주의), 군사독재라는 확고한 거부의 대상에 대한 투쟁과 영웅적 희생이 가능했던 20세기까지는 이러한 영웅적 담론이 주요한 분석의 도구로서 유효하지만, 이러한 확고한 거부의 대상과 영웅적 희생이 미시화된 21세기 한국에는 이러한 유효성이 힘을 잃기 마련이다. 이에 나병철은 ‘반오이디푸스 문화론’을 통해 한국의 성장소설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⁶⁾ 하지만 이러한 반-오이디푸스라는 시도 역시 거시적 관점에서는 오이디푸스 담론의 영향 안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반-오이디푸스가 아니라 오이디푸스 담론과는 다른 담론을 한국 문학 내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출발한다.

운명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이성적 주체인 오이디푸스적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는 “모나게 살지 말고, 둥근 세상 둥글둥글 살자.”고 말하는 어찌 보면 수동적이고 순응적인 주체와 동학농민운동에서부터 촛불 집회에까지 이르는 적극적이고 저항적인 주체의 간극을 분석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특히 주목할만한 지점은 20세기까지 나타난 저항적 시위 양상과 달리 21세기 촛불 집회에서 표면화한 문화제 혹은 축제로서의 시위 양상이다. 기존 권력에 대한 부정의 목소리를 내는 시위의

4) 한명희,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통해 본 김수영, 박인환, 김중삼의 시세계』, 『어문학』 제97호, 한국어문학회, 2007.

한명희, 『현대시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울력, 2009.

5) 강대진, 「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 왕」에 나타난 인간 지식의 한계」, 『지중해지역연구』 제7권 제2호,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연구소, 2005, 17~19쪽.

6) 나병철, 『가족로망스와 성장소설 -반오이디푸스 문화론』, 문예출판사, 2004.

양상이 강력하고 단일한 목표를 향한 집중화된 무력 운동이나 집회의 모습에서, 부정에 공감하는 다양한 단체와 개인이 이합집산하고 시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도 하고 놀이도 하는 축제나 문화제의 모습으로 변모한 것이다. 이러한 양상이 비단 한국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프랑스 68혁명이나 2011년 미국 월가 점령 시위에서도 이렇게 부정은 존재하지만 행동의 중심 세력은 명확하지 않은 중심과 주도세력은 사라지고 부정의 몸짓만이 나타나는 변화된 시위 양상을 보였다.⁷⁾ 그리고 21세기 한국 정치의 지형을 바꿔놓은 촛불 집회 역시 마찬가지로 중심과 주도세력이 미분화된 양상을 보였으며, 여기에 더하여 공연과 놀이가 어우러지는 축제의 양상도 나타났었다. 물론 이전의 집회 문화에서 이러한 거리굿과 공연의 모습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촛불 집회는 촛불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이러한 공연과 놀이가 표면화 되었다는 것이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변화한 저항의 양상에 대한 이미지로 본고에서 눈여겨본 것이 처용 설화의 처용무이다.

『삼국유사』 권이 「기이」 ‘처용랑망해사’조에 처음 기록된 처용 설화와 처용가, 처용무는 고려뿐만 아니라 조선 시대에도 꾸준히 반복 인용되고 연희 되었으며, 처용은 민간에서 역신을 막는 신으로 숭상되어왔다. 역신이 자신의 처를 범한 상황을 보고서도 물러나와 춤과 노래를 부른 처용 설화는 의미를 명확히 고정하기 어려운 가무의 의미를 중심으로 다양한 담론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처용 담론에 대한 연구는 논문이 약 700여편, 단행본이 약 500여권 출판되어 있는데, 이는 상당한 부분이 『처용 연구 전집』⁸⁾에 집대성되어 있다. 처용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어학, 문학, 민속, 역사,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국어학은 처용가의 어석을 밝히는데 주력하였고⁹⁾, 문학은 향가와 처용 설화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7) 슬라보예 지젝, 주성우 역, 『멈춰라, 생각하라』, 와이즈베리, 2012.

8) 『처용 연구 전집』은 처용 연구에 관한 논문을 집대성한 책으로 어학, 문학, 민속, 역사, 종합, 예술의 5개 부분 7권의 책으로 간행되었다.

처용연구전집간행위원회 편, 『처용 연구 전집』 I-VII, 역락, 2005.

9) 처용가의 해석에 대한 연구는 신채호(1924) 이래 양주동(1939), 방종현(1946), 김형규(1948, 1965), 김근수(1965), 김소강(1965), 박병채(1968), 전규태(1968), 강신행(1972), 윤영옥(1968), 김완진(1980), 강현규(1981), 고영근(1985), 고정의(1989), 최남희(1991)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였으므로¹⁰⁾, 비교문학은 동아시아의 연행문화와 관련하여 연구하였으므로¹¹⁾, 민속학은 처용이 가진 벽사의 의미를 중심으로 그 양상을 연구해왔으므로¹²⁾, 역사는 처용이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 실제 인물이라면 어떤 인물인지를 밝히는데 주력하였다.¹³⁾ 무용은 처용무 연희의 미학적 측면¹⁴⁾을 주로 연구해 왔으며, 그 외 처용무의 복식과 음악에 대한 연구¹⁵⁾가 있었다.

처용 담론의 담론화 양상은 학술적 해석의 차원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변용하는 텍스트의 차원에서도 나타난다. 처용의 이야기는 고전문학에서도 등장하고¹⁶⁾, 현대 문학에서는 시¹⁷⁾, 소설¹⁸⁾, 희곡¹⁹⁾ 등으로 다양하게 재창작되고,

10) 처용 설화와 처용가 전반의 의미와 전승과정에 대한 논의는 손진태(1930)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지만 김동욱(1967), 황패강(1973), 김학성(1995) 등에 의해 연구되었다.

11) 비교문학은 나례 등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연행문화와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송석하(1935)의 연구 이후로 김학주(1964), 최정여(1983), 박찬수(1995), 황선자(2001), 박은영(2004), 전경욱(2006), 허혜정(2006), 윤아영(2009), 최재원(2009) 등의 연구가 있다.

12) 처용가의 무속적 의미는 서대석(1980)의 연구, 벽사진경의 의미는 정운채(199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13) 처용의 정체에 대한 역사적 논의는 손진태(1930)이후 이용범(1969), 송재주(1981), 김진영(1986), 김열규(1999), 김기홍(2001), 김경수(2001), 박인희(2004), 박진태(2005), 전기웅(2005), 정수일(2005), 김창석(2006) 등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대개 이슬람 도래인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다.

14) 처용무에 대한 논의는 크게 역사적 변천 과정에 대한 논의(이애주(1970), 이종숙(1999), 손혜정(2003), 허영일(2006) 외), 미학적 특성과 표현의 상징성에 대한 논의(김미경(1990), 강호선(1996), 김지선(2001), 김말복(2002), 강여주(2006) 외), 기능적 측면과 현대적 재창조에 양상에 대한 논의(김성숙(2001), 허혜정(2006), 이영림(2010) 외), 무보 분석과 개별 춤사위에 대한 논의(조남규(1989), 김용숙(2000), 정금희(2005) 외) 등이 있다.

15) 처용무의 복식, 가면, 음악 등에 대한 연구는 민경혜(1987)의 복식 연구, 김수경(2001)의 탈의 변모 양상 연구, 임미선(2001)의 처용무 반주 음악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10여 편의 논문이 있다.

16) 『高麗史』, 『新增東國輿地勝覽』, 『東史綱目』, 『練藝室記述』 등 모두 22가지 작품에 처용 배경담이 나타난다.

박경우, 「處容 談論의 推移와 그 傳承의 問題」, 『열상고전연구』, 28권, 2008, 425-426쪽.

17) 처용을 모티브로 한 시로는 신석초의 「동경 밝은 달」(1959), 「처용은 말한다」(1974), 박남수의 「밤비」(1981), 서정주의 「처용훈」(1982), 이향아의 「處容歌」(1983), 박제천의 「處容」(1984), 이하석의 「처용의 딸」(1984), 임영조의 「처용별곡」(1985), 김현숙의 「처용의 아내」(1987), 박희진의 「처용가(處容歌)」(1988), 박리연의 「처용처가」(1990), 김춘수의 「처용」(1974), 『처용단장』

만화²⁰)나 드라마²¹) 등의 대중문화 작품에서도 등장한다. 그리고 울산에서는 매년 처용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처용 학회’도 존재한다. 이렇게 다양하게 분석되고 변용되는 처용 담론은 오이디푸스 담론과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처용 설화의 중심이 되는 부분은 역신이 자신의 처를 범하는 광경을 목도하고 서도 물러나와 노래와 춤을 추었다는 부분이다. 이러한 처용의 행위에 대해서 그동안 관용, 체념과 단념, 진노(震怒), 이객관대(異客款待) 등으로 보아 왔다.²²) 그러나 이러한 처용의 춤과 노래는 의미를 하나로 고정하기 힘든 주체의 고뇌와 국민 자체를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²³) 주체의 파멸과 비극이 예견되는 상황에

(1991), 최두석의 「노래와 이야기」(1991), 문정희의 「처용 아내의 노래」, 「혼장」(1996), 이지엽의 「처용의 땅」(1988), 한광구의 『서울 처용』(1993), 고창수의 「처용시대」(1994), 정일근의 『처용의 도시』(1995), 정정용의 『처용 아내의 허벅지에 바다가 찾아왔다』(2002), 윤석산의 『처용의 노래』(2003), 정숙의 『바람다비제(祭)』(2009), 『웬 생트집: -처용아내1(신처용가)』(2012) 등이 있다.

18) 정한숙의 『처용랑』(1958), 김춘수의 『처용』(1962), 신상성의 『처용의 웃음소리』(1981), 김소진의 『처용단장』(1993), 김장동의 『이미 앓아간 태양』(1995), 구광본의 『처용을 어디서 다시 볼꼬』(1997), 강영수의 『처용무』(1997), 윤후명의 『처용나무를 향하여』(1998), 구광본의 『나의 메피스토』(2001) 등이 있다.

19) 유치진의 <처용의 노래>(1952), 김현영의 <처용 아바>(1979), 오태석의 <필부의 꿈>(1986), 백순원의 <처용, 오디세이>(2007) 등이 있다.

20) 유시진의 <마나>(1994)와 전진석, 한승희의 <천일야화>(2005)는 각각 처용을 모티브로 하면서 유시진은 용신으로 전진석, 한승희는 이슬람 도래인으로 해석하고 있다.

21) 드라마로는 <처용>(2004)과 <귀신 보는 형사, 처용>(2014)이 있다.

22) 박춘규(2005)는 「處容歌의 巫覡性 考察」(『처용연구전집 Ⅲ』, 처용연구전집간행위원회, 489쪽)에서 처용의 태도를 “초인간적 불가항력에 대항할 수 없는 체념적 심리상태”로 규정한다. 그리고 김열규(2005)는 「處容傳乘試攷」(『처용연구전집 Ⅳ』, 처용연구전집간행위원회, 179쪽)에서 처용 아내와 역신의 통간사건을 의사모계적인 무당사회에서 생길 수 있는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생길 것이 생겼다는 그런 체념의 경지다.”라고 해석한다. 또한 이기문은 『국어사개설』에서 처용이 가무로 역신을 물리친 것으로 보았다. 김동욱(2005)은 「處容歌 研究」(『처용연구전집 Ⅲ』, 처용연구전집간행위원회, 76쪽)에서 처용의 행위를 자기 집 손님에게 처첩을 제공하는 이객관대로 해석하였다. 김진, 『처용설화의 해석학』, UUP, 2007, 39-41쪽에서 재인용.

23) 윤정업, 『三國遺事』「處容郎望海寺」條에 나타나는 춤의 意味 研究, 『어문연구』 175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7, 232~234쪽.

서 오이디푸스와 처용은 다른 결정을 내린다.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이성의 힘을 믿고 사실을 드러내는 쪽을 선택하고 자신과 타자에게 내려진 비극적 결말마저 스스로 책임지는 영웅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처용은 춤을 연희함으로써 역신이라는 타자가 스스로 드러나게 하며, 그 타자와 함께 살아가는 결말을 이끌어낸다.

기존의 연구들은 오이디푸스에게서는 그 비극성과 인간 지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이를 문학 비평의 원전으로 삼았고 처용 설화는 처용무의 의미를 밝히는데 주력하였다. 본고는 두 주체의 태도가 각각 다른 결과를 가져왔지만, 그 각각의 태도가 어느 한쪽이 옳고 어느 한쪽이 그른 것이 아닌, 상보적으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두 태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따라서 원전이 되는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과 『三國遺事』의 처용 설화의 서사를 비교함으로써 두 가지 태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주체가 세계에 편입되는 과정, 주체에게 나타난 갈등과 갈등 해결의 양상,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나는 주체의 변화와 주체에게 부여되는 의미를 비교함으로써 오이디푸스와는 다른 처용 담론의 양상을 발견하고자 한다.

II. 스스로 왕이 된 주체와 타의로 신하가 된 주체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스토리와 플롯의 차이를 설명하며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을 오이디푸스 신화라는 선형적 스토리를 뒤바뀔과 깨달음을 포함한 복합적 플롯으로 구성한 훌륭한 작품이라고 설명한다. 선형적 스토리라면 오이디푸스의 서사는 오이디푸스의 아버지 라이오스의 과오와 오이디푸스의 출생에서부터 시작하겠지만, 소포클레스는 이러한 스토리의 전반부를 과감하게 뛰어넘고 대화를 통해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에서 오이디푸스는 프롤로그부터 테베의 왕으로 등장하며, 스스로를 “세상에 널리 알려진 나”라고 지칭하는 자신만만한 성격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만만함은 오만

이 아니라 테베를 괴롭히던 스팅크스를 물리치고 스스로 왕이 된 자신의 능력에 기인한 것이며, 이러한 영웅적 업적 때문에 으뜸가는 왕으로 추앙받고 역병이라는 테베의 새로운 고난을 해결해주기를 부탁받는 것이다.

프롤로그

[오이디푸스] 여러분, 카드모스의 자손들이여, 대체 무슨 일로 머리를 띠를 두르고, 탄원의 나뭇가지를 들고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요? 나라는 온통 제사 향으로 가득하고 기도와 비탄의 소리가 터져 나오니 이게 어찌 된 일이요? 그대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 위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진 나, 오이디푸스가 여러분 앞에 나왔소이다. 자 노인이며, 그대가 이 사람들을 대신하여 말할 수 있을 터이니 그대들이 여기 모인 이유를 말하시오. 그대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소? 무엇을 원하는 거요? 나는 무슨 일이건 그대들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소이다.

[제관] 이 나라, 테바이를 다스리는 오이디푸스 왕이시여!중략..... 신이 내린 재앙이 나라를 내리 덮쳐 저주스러운 죽음의 병이 퍼지고 있으니 테바이의 집은 빈집이 되어가고 신음소리와 울음소리만이 들려올 뿐입니다. 우리들이 여기에 모인 것은 우리가 왕을 신과 같이 여기서가 아니라 세상일에서나 신들과 가까이 하는 일에서나 우리들 중에 으뜸가는 분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왕께서는 테바이에 오시어 가혹한 스팅크스의 속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왕께서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않고 오직 신의 도우심 하나만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오, 전능하신 왕이시여! 우리는 다시 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한번 왕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²⁴⁾

²⁴⁾ 소포클레스, 강대진 역, 『오이디푸스 왕』, 민음사, 2009, 19~20쪽, 밑줄은 작성자.

오이디푸스의 세계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이다. 지배 권력의 힘이 영토 전반을 지배하는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인 도시국가 시대에 도시와 도시 사이의 황야는 여행자를 노리는 도적이 출몰하는 무법지대였다. 스스로를 코린토스의 왕자라고 오인하는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범할 것이라는 신탁을 듣고 즉시 코린토스를 떠난다. 이러한 오이디푸스에게는 신탁이라는 운명을 거부하기 위해 스스로 안락한 왕자의 삶을 버리고 위험한 황야로 나서는 과감하고 진취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도시국가 시대에 도시의 지배력 바깥에 있는 황야는 위험하고 알 수 없는 미지의 땅(Tera incognita)이다. 이러한 미지의 영역에서 살며 테베로 들어오는 길목을 막고 여행자에게 수수께끼를 낸 다음 답을 맞히지 못한 여행자를 잡아먹는다는 스팅크스는 미지의 괴물이자 황야라는 거친 땅의 위험성 자체에 대한 은유, 그리고 그곳에 도사린 도적단에 대한 은유일 것이다. 그리고 혼자만의 힘으로 스팅크스를 물리치는 오이디푸스는 글자 그대로 영웅이며, 이 영웅적 업적의 대가로 비어있는 테베의 왕좌를 물려받게 된다.

오이디푸스가 스팅크스를 물리친 방법은 바로 스팅크스의 수수께끼를 맞히는 것이었다. 즉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권력이나 개인의 강력한 육체에서 비롯된 무력이 아닌, 지식 혹은 지혜를 통해 스팅크스의 속박을 풀어내는 것이다. 즉 오이디푸스는 개인의 뛰어난 지식과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동력을 통해 스스로 왕좌에 오르게 되는 이성적이고 적극적인 주체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에 대한 옹호, 이성에 대한 예찬은 결국 지식에 대한 과신과 오만으로 이어지고 스스로 비극적 결말을 불러들이는 단초가 된다.

이 서사에서 오이디푸스라는 주체는 스스로의 능력을 바탕으로 테베라는 세계에 왕이라는 위치로 편입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오이디푸스는 이미 이야기의 처음부터 그 성격이 구체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주체이다. 그 성격은 자신의 지식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찬 과감하고 적극적인 주체이며, 또한 지식에 대한 과신 때문에 비극을 맞이하는 인물로 이성과 합리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²⁵⁾

25) 백경옥, 「오이디푸스의 지식」, 『철학논총』 제25권 제1호, 새한철학회, 2001.

이에 비해 처용은 그 성격과 가능성이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은 인물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처용의 성격은 처용무 이후에 규정된다. 즉 처용은 완성되지 않은 미지의 인물로 나타난다.

제49대 헌강대왕(憲康大王) 때는 서울[京師]에서 해내에 이르기까지 집과 담장이 잇닿아 있고, 초기는 하나도 없었다. 풍악과 노래소리가 길에 끊이지 않았고, 바람과 비는 사철 순조로왔다.

이때 대왕은 개운포(開雲浦)<학성(鶴城) 서남쪽에 있으니, 지금의 울주(蔚州)>에 출유하였다. 왕이 바야흐로 환궁하려 하여 물가에서 낮 휴식을 취하였는데,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짙게 끼어 길을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괴이하여 좌우에게 물으니, 일관이 아뢰기를, “이는 동해룡의 조화입니다. 마땅히 좋은 일을 행하시어 이를 푸셔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유사에게 칙명을 내려 용을 위해 가까운 지경에 절을 세우게 하였다. 왕령이 내려지자 구름이 개이고 안개가 흩어졌다. 이로 인해 [그 물가를] 개운포라고 이름하였다. 동해룡은 기뻐하여 일곱 아들을 거느리고 왕 앞에 나타나 왕의 덕을 찬양하여 춤을 추며 풍악을 연주하였다.

그 중 한 아들이 왕의 수레를 따라 서울에 들어와 왕정을 보좌하였는데, 이름을 처용(處容)이라고 하였다.²⁶⁾

처용의 세계는 간단하게 말하면 신라 시대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삼국유사』의 찬술자²⁷⁾가 구현한 세계이다. 『삼국유사』의 찬술자는 『삼국유사』의 편찬을 통해

26) 강인구 외, 『譯註 三國遺事 II』, 以會文化社, 2003, 130쪽.

27) 본고는 저자를 일연으로 단정하지 않고 ‘찬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삼국유사』는 역사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중요한 텍스트이지만, 그 서지정보에 대해서는 다소의 혼란이 있다. 즉 저자, 저술시기, 초판본의 간행시기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삼국유사』의 저술배경과 유통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미약하다는데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삼국유사』의 저자에 대한 혼란은 『東國輿地勝覽』과 같은 조선 전기의 문헌들로부터 후기의 『東史綱目』에 이르기까지 답습되어 왔지만, 최남선이 저자를 승려 일연으로 단정한 이후, 학계에서는 그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고려 왕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불교를 통한 단합과 국난 극복 의지의 고취를 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신라 중심의 정치사와 불교 중심의 정신사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²⁸⁾ 따라서 ‘처용랑망해사’ 조는 신라라는 정통성을 확보한 국가가 동해룡으로 상징되는 미지의 세력을 복속하는 은유적 서사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서사에서 처용은 동해룡의 일곱 아들 중 하나로 드러날 뿐, 몇 제인지도 모르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도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은 채로 등장하며, 심지어 처용이라는 이름은 처용이 신라의 신하가 된 이후에 나타난다. 『삼국유사』는 처용이라는 동해룡의 아들이 왕을 따라왔다고 기술한 것이 아니라, “그 중 한 아들이(其一子)” 왕을 따라 서울에 들어온 이후에 “이름을 처용이라고 하였다(名曰處容).”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처용이라는 이름 역시 그의 본명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또한 처용이 신라라는 세계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결단을 내렸는지는 전혀 알 수 없으며, 오히려 정황상 자신의 선택이 아닌 아버지 동해룡의 명령에 의해 신라로 오게 된 것일 가능성도 있다. 더 나아가 동해룡을 신라에 아직 편입되지 않은 지방 세력에 대한 은유로 본다면, 처용은 동해룡과 왕의 우호를 상징하는 선물 혹은 동해룡의 신라 편입을 위한 담보이자 신라의 지배를 상징하는 볼모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아무런 성격도 규정되지 않은 처용은 후에 역신과의 만남을 통해 성격을 부여받게 된다. 자신의 과감한 판단과 영웅적 지식을 통해 세계에 왕으로 위치한 오이디푸스와 달리 처용은 어떠한 성격도 영웅성도 보여주지 않고 타의에 의해 신라라는 세계에 신하라는 위치로 편입된다. 그리고 미지의 주체 처용은 역신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주체로 거듭나게 된다.

오이디푸스와 처용의 공통점은 각각 황야와 동해로 상징되는 인지 너머의 땅(Tera incognita)에서 테베와 신라라는 세계로 편입해 들어온다는 점이다. 이는 정

차광호, 『『삼국유사(三國遺事)』 ‘기이(紀異)편’의 저술의도와 고구려 인식』, 『사학지』 제41호, 단국사학회, 2009, 53쪽.

28) 윤정엽, 「무왕조 서사 연구 -편목 및 조목과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국학연구논총』 제13집, 태민국학연구원, 2014, 220쪽

신분석학의 용어를 빌리면 인간이 거울단계를 통과해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이며, 개인이 사회화를 통해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다. 둘의 차이점은 세계로 편입하는 순간에 자신의 성격이 드러나 있거나 드러나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서사의 전 반부에서 표면적으로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존재로, 처용은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존재로 나타난다. 그러나 심층을 살펴보면 오이디푸스는 자신을 안다고 오인하는 주체이며, 처용은 스스로에 대해 모른다는 것을 아는 주체이다. 이 차이는 세계와 주체와의 갈등 양상에서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III. 과감히 거부하는 주체와 결단을 지연하는 주체

오이디푸스와 처용 서사의 주체는 완벽한 주체가 아닌 한계를 가진 주체로 제시되는데 이러한 주체의 한계는 주체가 세계로 진입하면서 표면화된다. 라캉의 용어를 빌리면 오이디푸스와 처용은 결여된 주체이며 주체의 결여는 세계로의 편입이라는 거울단계를 통과하면서 사후적으로 발생한다. 또한 주체가 진입한 세계 역시 완벽한 세계는 아니며 주체는 세계의 완벽하지 않음과 어느 순간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주체가 세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갈등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소해야 하는데, 주체의 성격에 따라 해소의 양상은 달라진다. 즉 주체가 결여되어 있듯이 주체가 구성한 세계 역시 결여를 가지고 있으며, 이 결여는 실재(The Real)²⁹⁾라는 흔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결여된 주체에 의해 구성된 현실은 필연적으로 어떤 빈틈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으며, 주체는 어느 순간 이러한 빈틈, 즉 실재를 맞닥뜨리게 된다. 그리고 주체의 결여 양상에 따라 실재를 받아들여

29) 라캉은 보로메오 고리(Borromean Rings)의 은유를 통해 현실(reality)이 the Imaginary, the Symbolic, the Real의 세 가지 층위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이를 초기 라캉의 번역서에서는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로 번역하였는데, 후기 라캉과 지젝에 이르러서는 실재계는 어떤 계(界)가 아니라 사후적으로 구성된 빈틈 혹은 구멍으로 설명하면서 '실재계가 아니라 '실재'로 번역하게 되었다. 본고는 이를 따라 '실재계가 아니라 '실재'로 표기하겠다.

고 현실화하는 양상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세계 내 주체의 갈등 양상이 모든 문학적 서사의 축을 이루게 된다.

『오이디푸스 왕』에서 세계의 한계는 테베에 창궐하는 역병으로 표면화된다. 그리고 프롤로그에 나타난 것처럼 테베의 주민들은 오이디푸스가 스팅크스를 물리치고 테베에 평안을 가져왔듯이 역병 역시 해결해주기를 간청한다. 오이디푸스는 이 문제에서도 그 적극적인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내며 이미 아폴론 신의 신탁을 받기 위해 크레온을 사자로 보냈다고 이야기한다. 곧이어 돌아온 크레온은 선왕 라이오스의 살인자들을 찾아내 벌해야 한다는 신탁을 전한다.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반드시 라이오스의 살인자들을 찾아내 황야로 쫓아내겠다고 공언한다.

이러한 세계와의 갈등을 해결하고자하는 오이디푸스의 주된 태도는 오이디푸스의 오인 혹은 착오에서 기인한 그릇된 확신에서 비롯된 과감하고 적극적인 거부 태도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하마르티아(hamartia, 비극적 행동/비극적 결함)라고 설명한다. 『시학』의 용어를 빌리면, 영웅적 인물의 모방인 비극은 인물의 오인 혹은 뒤바뀐에서 비롯된 비극적 행동을 통해 서사가 심화되며 깨달음을 통해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된다.³⁰⁾ 오이디푸스의 하마르티아는 자신의 지식에 기반하여 지속적으로 타자의 목소리를 거부한다는 점이다. 오이디푸스는 눈 먼 예언자 테레이시아스가 선왕의 살해범이 다름 아닌 오이디푸스 자신이라는 말을 테레이시아스가 크레온의 시주를 받아 왕권을 노리고 있다며 거부하고, 크레온의 자신은 반역자가 아니라는 변론도 거부하며, 이오카스테가 오이디푸스에게 자신의 정체를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라는 부탁도 거부한다. 그러나 이 거부는 비록 오해로 구성되었다고는 하더라도 철저히 자신의 지식에 기반한 것이며, 오이디푸스가 뒤바뀐을 깨닫지 못하는 이상, 즉 계속 오인의 상태에 있는 이상 오이디푸스 자신에게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이다. 그리고 오이디푸스는 이 지식에 기반한 거부를 통해서(신탁을 받자마자 신탁을 거부하기 위해 코린토스를 떠난다) 이미 성공을 이루었기 때문에(테베로 오는 과정에서 스팅크스를 물리치고 그 결과 테베의

30) 이상섭,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연구』, 문학과지성사, 2002, 77~82쪽.

왕이 된다) 이러한 거부의 태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오이디푸스의 거부의 태도는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우유부단한 태도가 아니다. 역설적으로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과감한 태도이다. 다만 뒤바뀐 사실을 모르는 오인에서 기인한 합리성이라는 한계를 내재하고 있을 뿐이다. 소포클레스의 치밀한 플롯 구성은 이러한 한계를 충분히 개연성 있게 이끌어가고 있다.

‘처용랑 망해사’조에서 세계의 한계, 즉 실재는 아름다운 처용의 부인을 흠모하는 역신으로 구체화된다.

왕은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게 하여 그가 마음을 붙여 머물러 있기를 바랐고, 또 급간(緇干)의 벼슬을 주었다. 그의 아내는 매우 아름다웠으므로 역신(疫神)이 그를 흠모해 사람으로 변하여 밤에 그의 집에 가서 몰래 함께 잤다. 처용이 밖에서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곧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물러났다.³¹⁾

헌강왕이 처용이 ‘마음을 붙여 머물러 있기를 바랐’다는 점에서 헌강왕이 구축한 세계가 처용에게 완벽한 세계가 아니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처용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게 하고 급간의 벼슬을 내리지만, 이 아름다운 여인이 오히려 역신 등장의 매개가 되며 처용이라는 주체에게 갈등을 가져온다. 이러한 오쟁이 진 남편이라는 주체의 내적 갈등 양상은 『삼국유사』 ‘射琴匣’조에서도 나타나며, 처용 서사의 중핵이 되는 갈등이자 현대에도 다양한 형태로 처용 서사가 변주되는 모티브가 된다. ‘사금갑’조에서 비처왕은 행차한 곳에서 거문고갑을 쏘라는 글을 받고 궁중으로 돌아와 그대로 하였더니, 분수승과 궁주의 간통을 발견하고 둘을 처형한다. 즉 ‘사금갑’조에서는 오쟁이 진 왕이 간통한 중과 첩에게 즉각적인 사형을 내림으로써 갈등을 해결한다. 그러나 처용은 일개 신하일 뿐 왕이 아니며, 처와 역신의 간통을 목격하고도 그 자리에서 물러난다. 처용을 물러나게 한 역신의 정체로 그 동안의 연구는 무속인 처용을 두려워하게 된 진짜 역

31) 강인구 외, 『譯註 三國遺事 II』, 以會文化社, 2003, 130쪽.

신, 처용의 처와 직위를 마뜩찮게 여기고 질투하는 다른 정치세력, 혹은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게 해 준 현강왕 본인 등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중요하게 보는 지점은 역신의 정체가 아니라, 역신을 대하는 처용의 태도이다.

잠자리에 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곧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물러나는 처용의 태도는 ‘사금갑’조의 비처왕이나 오이디푸스 왕과 달리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판단을 유보하고 노래와 춤이라는 매개를 통해 결단을 지연하는 태도이다. 이는 단순히 우유부단한 태도가 아니라, 과감한 판단이 혹시라도 가져올 비극적 결말을 유보하고 지연하는 태도이다. 처용의 춤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데, 중요한 것은 처용의 춤이 판단을 내리고서 추는 춤이 아니라 판단을 위해 추는 춤이라는 점이다. 춤은 관찰 이전에는 의미가 결정되지 않은, 다양한 층층결정이 섞여 있는 원형적이고 해체적인 기표이다. 처용의 춤은 (끔찍한) 실재를 맞닥뜨린 주체가 실재를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를 받아들이고 현실에 안착시키기 위한 상징적 제스처이다. 실재를 받아들이는 데는 어떤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며, 그 ‘숙고의 시간’을 처용은 ‘춤’이라는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다.³²⁾

오이디푸스는 비록 오인인지라도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과감하게 갈등의 원천을 배제하고자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주체이다. 이는 자신감에 찬 영웅적인 인간형이며, 오류를 배제할 경우 정반합의 사유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진보를 이루어낼 수 있는 발전적 인간형이다. 이와 달리 처용은 갈등을 마주하지만 이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을 유보하는 주체이다. 이는 즉각적 판단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지연을 통해 유보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오이디푸스 서사는 프롤로그부터 오이디푸스의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과감하나 유연성이 부족한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있고, 처용 서사는 성격을 규정하지 않음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유연한 캐릭터를 묘사하고 있다.

32) 처용의 춤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윤정업, 「『三國遺事』 ‘處容郎望海寺’條에 나타나는 춤의 意味 研究」, 위 논문, 233쪽 참고.

IV. 비극적 영웅으로서의 주체와 타자를 발견하는 주체

갈등에 대응하는 두 주체의 태도 차이는 두 주체에게 각기 다른 변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이 변화를 통해 주체에게 부여되는 의미 역시 차이가 발생한다.

변하지 않고 유연성이 부족한 오이디푸스의 태도는 점점 비극으로 치닫는다. 결국 자신의 출생의 비밀과, 선왕을 살해한 도적떼들은 여러 명이고 자신이 테베로 오기 전 황야에서 어떤 여행자를 죽인 일은 있지만, 나는 혼자였으므로 도적떼에게 살해당한 라이오스의 살해범은 아니라는 숫자 혼동, 그리고 이러한 오인에 의해 기인한 잘못된 판단으로 주변의 조언을 모두 무시한 결과 오이디푸스는 결국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다. 오이디푸스가 선왕 라이오스의 아들이자 살해범이며, 어머니 이오키스테의 아들이자 남편이라는 비극적 사실이 밝혀지자 이오키스테는 목을 매달아 자결하고, 오이디푸스는 스스로 눈을 찔러 맹인이 된 후 황야로 나간다.

뒤바뀐 일어난 자신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오이디푸스는 비록 비극적 결말을 맞지만 끝까지 영웅적 면모를 잃지 않는다. 드러난 실재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오키스테와 달리, 오이디푸스는 선왕의 살해범을 황야로 추방하겠다는 자신의 선언을 눈을 찌르고 황야로 나감으로써 지킨다. 이오키스테가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실재로부터 도망쳤다면 오이디푸스는 그 끔찍한 실재의 충격을 받아들이고 감내한다. 이를 통해 오이디푸스는 자신을 파괴하면서도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난다. 그러나 주체와 실재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오이디푸스라는 주체는 자신의 비밀이라는 실재로 인해 파괴되지만 할 뿐 어떠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한다. 아끼일 때 황야에 버려져서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을 얻은 주체는 황야를 거치면서 왕의 위치에 올라서고, 자신의 비밀을 미주하면서 황야로 추방되는 신세가 된다. 황야라는 미지의 영역은 영영 미지의 영역으로 남는다. 여기서 테베라는 세계는 역병이 사라지는 변화를 겪고, 오이디푸스라는 주체는 영웅으로 변모하지만, 실재라는 세계와 황야의 간극은 여전히 끔찍하고 충격적인 무언가로 남아 있다. 그리고 주체와 실재는 공존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영역에서 별개의 것으로 살아가게 된다.

반면에 성격을 규정하지 않으므로 유연성을 획득한 처용의 태도는 신라 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다. 처용은 자신의 처와 역신이 동침하는 상황을 보고도 노래와 춤을 추며 물러나는데, 이를 통해 역신이 스스로 역신임을 드러내게 한다. 즉 역신은 처용의 춤과 노래를 통해 역신이라는 위치를 부여받는 것이다.³³⁾ 반면에 아버지의 명령으로 신라로 오게 되고 왕에 의해 부인과 관직을 받은 처용이라는 주체는 우유부단하고 수동적인 주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처와 역신의 동침이라는 끔찍한 실재를 마주한 순간에 판단을 유보하고 지연함으로써 실재에게 역신이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신라라는 세계로 포섭해 들어온다. 오이디푸스와 비교해 볼 때 처용은 전혀 영웅적이지 않다. 그러나 주체와 실재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처용이라는 주체는 처와 역신의 동침이라는 충격적 실재가 드러남에도 파멸을 맞이하지 않고, 오히려 실재에 역신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여 현실에 안착시킨다. 그리고 실재는 이름을 부여받고 변화한 형태로 주체와 함께 현실을 살아 가게 되는 것이다. 역신이라는 실재를 타자로 발견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오이디푸스와는 다른 처용이라는 주체에 내재된 가능성이다. 처용의 춤 이후 신라 사회는 이전에는 없던 벽사의 능력을 가진 처용이라는 인물과 인격화한 역신이라는 대상을 획득한다. 처를 범하는 끔찍한 그 무언기는 이름 없는 거시기, 즉 실재로서 세계를 윤행처럼 떠도는 것이 아니라, 역신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그 역신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³⁴⁾과 함께 신라라는 세계 안에서 함께 살게 된 것이다. 이를 병리학적으로 설명하면 원인도 모르고 이름도 없이 증상만이 존재하던 병에 이름을 붙이고 치료법을 찾아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이디푸스는 테베의 역병이라는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적 한계까지 뛰어넘지만 개인적으로는 황야로 쫓겨나는 비극적 영웅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33) 처용이라는 이름의 사후적 형성과, 역신이라는 실재의 사후적 명명에 대한 설명은 윤정업 「김소진의 <처용단장>을 중심으로 살펴 본 처용 담론의 이데올로기 연구」, 『국어국문학』 165호, 국어국문학회, 2013년, 469~471쪽 참고.

34) 역신은 처용이 물러나와 춤을 추는 것을 보고는 감복하여, 이후로는 공의 화상이 붙어있는 것만 보아도 범접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譯註 三國遺事 II』, 위의 책, 130쪽.

오이디푸스의 세계에서 이성에 대한 맹목이라는 실재는 그대로 남아 인간의 세계를 유령처럼 배회하며 또 다른 먹잇감을 찾는다. 즉 실재는 그대로 끄찍한 거서기로 남아 있는 것이고 세계는 실재에 대한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못하며 다만 드러나지 않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다. 처용은 처의 간통이라는 개인적 문제를 포용함으로써 벽사의 능력을 부여받는 시민적 영웅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민적 영웅은 오이디푸스라는 비극적 영웅에 비하면 초라해 보인다. 하지만 처용의 세계에서 처를 범하는 무언가, 즉 소집단의 안정을 침노하는 끄찍한 무언가라는 실재는, 역신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으며 타자라는 인식 가능한 대상이 된다.³⁵⁾ 그리고 동시에 신라는 그 대상을 방어할 수 있는 처용의 벽사 능력까지 획득한다. 신라 세계는 역병을 발견하고 동시에 백신까지 획득한 셈인 것이다. 이렇게 실재는 이름을 얻으면서 인식 너머의 유령에서 인지 가능한 대상으로 변화한다. 갈등에 대응하는 두 주체의 태도 차이가 주체와 세계, 그리고 실재에게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V. 결론

오이디푸스 담론과 처용 담론의 비교는 단순히 어느 쪽이 더 낮고 어느 쪽이 부족하다는 차원의 논의가 아니다. 두 담론은 갈등을 마주하는 태도의 차이를 통해서도 다른 가능성을 담지하기 때문이다.

오이디푸스는 자신 때문에 생겨난 테베의 역병이라는 실재의 증상을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그러나 지나친 과감함과 자기 이성에 대한 맹신은 역병의 원인은 밝혀내지만 자기 자신은 비극적 결말을 맞게 한다. 그러나 오이디푸스는

³⁵⁾ 그렇다고해서 실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끄찍한 무언가라는 실재는 역신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으면서 즉 상징계로 진입하면서 인식 가능한 대상이 되지만, 이러한 이름 부여의 과정(상징계로 진입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상징계가 포섭하지 못하는 또 다른 무언가를 낳게 된다. 이는 상징계 즉, 언어가 대상을 언어화하는 추상과 사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 한계이다. 실재는 끝없는 기표연쇄의 과정에서 끝까지 기의의 위치에 있는(사상된 대상으로 남는), 기표로 포섭되지 않는 그 무언가이다.

끝까지 자신의 말을 지켜냄으로서 비극적 영웅의 이야기를 완성한다. 처용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생겨난 역신이라는 실재를 마주하자 실질적 행동은 지연하고 춤이라는 숙고의 시간을 통해 역신이 스스로 물러나게 한다. 그리고 처용과 역신은 세계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된다. 오이디푸스는 타자성을 거부하고 축출함으로써 영웅의 위치에 오르지만, 처용은 행동의 지연을 통해 타자를 발견하고 타자와 함께 살아가게 된다. 오이디푸스의 세계에서 실재는 끝까지 유령 같은 거시기로 남지만, 처용의 세계에서 실재는 비록 전부가 아니고 일부분일지라도 이름을 받고 인지의 범위 안으로 들어온다.³⁶⁾

오이디푸스의 적극적인 태도는 테베의 역병이라는 증상을 즉각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성에 대한 맹목이라는 경직된 태도는 변화하지 않으며, 맹목과 오인이라는 인지의 구멍(실재) 역시 그대로 남아 또 다른 오이디푸스를 찾아 떠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처용의 수동적인 태도는 신라에 극적 변화를 가져다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처용의 유연한 태도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역신이라는 증상에 대한 백신을 획득하게 한다. 그러나 이 백신은 처용 혼자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신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처용의 유연성은 수동성 위에서 작동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두 태도의 한계를 경계하고 장점을 취한다면 새로운 가능성을 획득하지 않을까 한다.

본 연구는 처용 담론을 새롭게 바라보면서 현대 한국 문학과 사회를 설명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를 위해 현대 한국 문학 분석의 주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오이디푸스 담론과 처용 담론을 서사의 차원에서 비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차별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는 이 차별성을 구체적 작품 분석을 통해 신빙성 있게 적용해나가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³⁶⁾ 물론 실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겠지만, 적어도 처용 서사 안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참고문헌]

<단행본>

- 강인구 외, 『譯註 三國遺事 II』, 以會文化社, 2003.
- 소포클레스, 강대진 역, 『오이디푸스 왕』, 민음사, 2009.
- 슬라보예 지젝, 주성우 역, 『멈춰라, 생각하라』, 와이즈베리, 2012.
- 이상섭,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연구』, 문학과지성사, 2002.
- 처용연구전집간행위원회 편, 『처용 연구 전집』 I-VII, 역락, 2005.

<논문>

- 강대진, 「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 왕」에 나타난 인간 지식의 한계」, 『지중해지역연구』 제7권 제2호,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연구소, 2005.
- 도정일, 「도정일의 신화 읽기(9): 20세기의 오이디푸스」, 『문학동네』 6권 2호, 문학동네, 1999 여름.
- 김광일, 『韓國傳統文化的 精神分析 : 神話, 巫俗, 그리고 宗教體驗』, 한국학술정보, 2003.
- 김진, 『처용설화의 해석학』, UUP, 2007,
- 나병철, 『가족로망스와 성장소설 -반오이디푸스 문화론』, 문예출판사, 2004.
- 류인균, 『한국 고소설에 나타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 <심청전>.<콩쥐팍쥐전>』,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 류인균,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이해 : 이광수, 김동인, 염상섭, 이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 백경옥, 「오이디푸스의 지식」, 『철학논총』 제25권 제1호, 새한철학회, 2001.
- 윤정업 「김소진의 <처용단장>을 중심으로 살펴 본 처용 담론의 이데올로기 연구」, 『국어국문학』 165호, 국어국문학회, 2013.
- 윤정업, 「『三國遺事』 ‘處容郎望海寺’條에 나타나는 춤의 意味 研究」, 『어문연구』 175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7.
- 차광호, 「『삼국유사(三國遺事)』 ‘기이(紀異)편’의 저술의도와 고구려 인식」, 『사학지』 제41호, 단국사학회, 2009.
- 한명희,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통해 본 김수영, 박인환, 김종삼의 시세계』, 「

어문학」 제97호, 한국어문학회, 2007.

한명희, 『현대시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울력, 2009.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Narrative of Cheoyong and Oedipus

– Based on Subject's Resistance and Changing Patterns

Youn, Jung-eop

This study aims to find the possibility of Cheoyong discourse different from Oedipus discourse by comparing Oedipus of Sophocles' tragedy “King of Oedipus” and Cheoyong of ‘Cheoyongrang Manghaesa’ in 『Samgukyusa』. This will be a new point of view for contemporary Korean literature and society.

Thus, by comparing the process of incorporating the subject into the world, conflict and conflict resolution in the subject and the change of the subject and the meaning given to the subject, I would like to find a different aspect of Cheoyong discourse than Oedipus.

Key Words: Cheoyong, Oedipus, Conflict situation, Changes in subject
and the Real, Aggressive will and flexible attitude

□ 이 논문은 2018년 8월 23에 접수되고

2018년 9월 18일에 심사완료 되어

2018년 9월 27일에 게재 확정되었습니다.